

##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정우락\*\*

### 【 차례 】

- I. 논의의 방향
- II. 연구사 개관
- III. 분야별 연구성과
- IV. 주제별 문제의식
- V. 연구의 과제들

### 【 국문초록 】

본 논의는 이정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진행되어 마땅한가 하는 부분을 따진 것이다. 이정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구암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황과 조식 사이에서 그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당대의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영남학과 분기의 계기가 되었던 淸州淫婦獄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이것은 구암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효했던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구암학을 논의함에 있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정에 대한 향후의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구암집』에 대한 텍스트 비평, '철학 분야의 본격적 연구', '문학 분야의 확장적 논의', '교육학 분야의 총체적 연구', '이정의 학문적 수수관계', '구암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구암학 연구를 위한 일체의 자료를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집하고 정리해서 번역해 내는 일, 일반인이 구암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암 평전』을 쓰는 일 등 다양한 작업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될 때 구암학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날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의미로 부각될 것으로 본다.

#### 주제어

구암 이정, 구암학, 영남학과, 퇴계학, 남명학, 연구의 반성, 향후의 과제

## I. 논의의 방향

李楨(龜巖, 1512-1571)에 대하여 李宜顯(陶谷, 1669-1745)은 사천을 대표하는 인물로, 李萬敷(息山, 1664-1732)는 직언을 잘한 인물로 특기하고 있다. 그는 시문과 함께 성리학에 능통하였으며, 25세의 나이로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을 비롯해 6조 참의와 대사간 등의 내직과 영주·선산·청주·경주·순천 등에서 외직을 두루 역임한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다. 이로써 그는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적 관료로 평가될 수 있었다.

사대부는 ‘士+大夫’를 의미하니 기본적으로 학자이면서 행정가이다.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현실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출처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물러나 학자가 되고 나아가 행정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인들은 과거를 통해 발신할 것을 꿈꾸며 거듭 과장에 나아갔고, 때로는 퇴치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출사를 꿈꾸면서도 이것이 여의치 않자 출처의식에 따라 퇴치한 것처럼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정이 학자이면서 행정가라고 할 때, 그의 학문적 성과와 행정가적

성과는 어떠하였는가. 이것은 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찍이 이정은 자신의 뜻을 「龜巖歌」에 붙여 노래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顏淵의 학문을 배우고 伊尹이 뜻한 바를 뜻한다.”<sup>1)</sup>라고 했다. 안연과 이윤은 퇴처형 지식인과 출사형 지식인을 대표한다고 하겠는데, 이들은 周敦頤(濂溪, 1017-1073)가 『통서』에서 “이윤이 뜻한 바를 뜻하고 안연이 배운 바를 배운다(志伊尹之所志, 學顏淵之所學).”라고 한 이래, 許衡(魯齋, 1209-1281)과 曹植(南冥, 1501-1572) 등이 중요한 실천적 지표로 삼았던 인물들이다.<sup>2)</sup>

이정은 학자적 관료였기 때문에 관직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주부윤으로 재임할 때 西岳精舍를 세우거나 순천부사로 재임할 때 玉川精舍를 세운 것은 물론이고, 『皇明名臣言行錄』과 『性理遺編』 등 20종의 도서를 편찬·교정하거나 간행하여 성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즉 그는 국왕의 포상과 백성의 칭송을 받을 만큼 뛰어난 관료이면서도, 학문에 대한 뜻을 놓지 않고 도서를 편찬 간행하여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성리학을 공급하였던 것이다.

이정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집인 『구암집』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원집과 속집, 그리고 별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합 6권 3책이다. 원집 2권은 1640년(인조 18)에 許穆(眉叟, 1595-1682)이 교정하여 구암서원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속집 2권은 魚有성과 田禹基가 자료를 더 찾아 1748년(영조 24)에 간행하였고, 별집 2권은 李種杞(晚

1) 李楨, 「龜巖歌」, 『龜巖續集』 卷1(『韓國文集叢刊』 90, 486쪽), “陸陸半世, 學顏而志尹兮!”

2) 정인홍이 쓴 조식의 행장에서 “先生年二十六歲時, 偕友人肄業於山寺, 讀性理大全, 至許魯齋之言曰, 志伊尹之所志, 學顏淵之所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丈夫當如此, 出無爲, 處無守, 所志所學, 將何爲.(鄭仁弘, 「行狀」, 『南冥集』, 『韓國文集叢刊』 31, 455쪽)”라 한 데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求, 1837-1902)의 교정을 거쳐 후손 泰煥 등이 1902년에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272제 330수의 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체의 산문이 실려 있는 바, 그의 학문자세와 현실인식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902년 『구암집』이 마지막으로 간행된 후, 1994년에는 이정의 후손 李中喆에 의해 『龜巖年譜』<sup>3)</sup>가 발간되었다. 주자의 「仁說圖」를 이정의 것으로 실어 놓는 등 심각한 오류가 없지 않으나 이정의 여러 사적을 연대별로 자세히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 이후 2002년에는 李仁燮에 의해 『구암집』<sup>4)</sup>이 번역되었는데 이정이 남긴 글을 우리말로 풀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도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그러나 국역 『구암집』은 초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허다한 오역이 발견된다.<sup>5)</sup>

본 논의는 이정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진행되어 마땅한가 하는 부분을 따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연구사적 측면을 통시적으로 개관한다. 다음, 연구사에 나타난 분야별 연구를 공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사적 문제의식 내지 쟁점을 조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향후 연구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3) 李中喆,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1994. 이 책은 2002년 이정의 영정을 넣어 재판하였다.

4) 李仁燮, 『龜巖集』(天·地·人), 泗川文化院, 2002.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암집』은 구암 탄신 500주년(2013년)을 기념하여 새롭게 번역되었다. 번역은 成基玉이 담당했고, 사천문화원과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에서 냈다.

## II. 연구사 개관

모든 연구가 그러하겠지만 이정에 대한 연구도 일정한 시간대별로 따져볼 수 있다. 이정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0년 남짓한 것이 그 연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이정이 담지한 영남학과 내적 위상과 성리학 발달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자각한 일련의 단체와 연구자들이 이정 연구를 시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이정의 고향에 소재한 사천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편의상 5년 단위로 나누어 그 흐름을 파악해 보자.

제1기(2000-2005)는 이정의 문집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던 시기이다. 즉 이 시기는 『구암집』 해제를 통해 이정 사상의 대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역사와 철학,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 두루 타진했다. 대표적인 업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01. 신병주, 「『龜巖集』 해제」, 『南冥學研究』 1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0.
02. 鄭萬祚, 「宣祖初 晉州淫婦獄과 그 波紋」, 『韓國學論叢』 22,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2000.
03. 李樹健, 「龜巖 李楨의 生涯와 學問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 李楨 先生의 生涯와 學問』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2.
04. 이은식, 「龜巖과 晉州獄事」, 『龜巖 李楨 先生의 生涯와 學問』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2.
05. 姜玟求, 「龜巖 李楨과 泗川·晉州地域의 退溪學派」, 『退溪學과 韓國文化』 31, 慶北大 退溪研究所, 2002.
06. 정우락, 「『중용』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07. 최영성, 「龜巖 李楨의 學問과 朝鮮儒學史上的 貢獻」, 『유교문화연구』 7,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4.
08. 정경주, 「구암 이정의 사우와 학문연원」, 『제4차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5.<sup>6)</sup>

이정에 대한 관심은 우선 역사학계에서 시작되었다. 『구암집』의 규모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작업은 신병주(01)<sup>7)</sup>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1988년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구암집』을 간략히 소개한 이래<sup>8)</sup> 이정과 『구암집』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그의 학문연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 정경주(08)의 논의가 필요했다. 정경주는 이 글에서 이정이 초년에는 魚得江(灌圃, 1470-1550), 중년에는 宋麟壽(圭菴, 1499-1547)와 周世鵬(愼齋, 1495-1554)에게 배웠고, 중년 이후에는 李滉(退溪, 1501-1570)을 학문의 표적으로 삼았으며, 만년에는 曹植(南冥, 1501-1572)과도 교분을 깊이 하였던 점을 밝혔다.

신병주가 해제에서 이정과 『구암집』을 소개한 이래 역사와 문학, 그리고 철학방면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났다. 정만조(02)는 신병주와 거의 동시에 선조 초에 일어났던 진주음부옥을 다루면서 조식과 이정을 둘러싼 이 사건의 구체상을 정밀하게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는 이은식(04)에게로 이어져 이 사건이 안고 있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한편 이수건(03)에 의해 이정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이정을 이

6) 이 글은 정경주, 『한국중세문화인물연구』(신지서원, 2010)에도 전재되어 있다.

7) 여기서의 숫자는 연구사적 검토에서 제시한 일련번호이다. 앞으로도 숫자는 이것을 의미한다.

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구암집』, 『민족문화논총』 4,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황과 조식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강민구(05)는 泗川·晉州地域의 退溪學派의 일원으로 이정을 떠올리면서 그의 문학관과 함께 문학을 개괄했고, 정우락(06)은 『중용』을 특별히 주목하여 이 책이 이정 문학에 끼친 영향을 다루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정 문학 연구의 방향이 처음부터 확장적 측면과 집약적인 측면이 동시에 모색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시기 이정에 대한 관심은 철학계에서도 일어났는데, 최영성(07)은 그의 논의에서 이정을 성리학의 저변확대와 토착화에 커다란 공헌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2기(2006-2010)는 이정의 문학에 특별히 주목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도 역사학과 경학 방면에서 이정을 주목한 논의가 없지 않으나, 주로 문학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학이 '구암학'의 본령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문집에는 272제 330수<sup>9)</sup>의 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체의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를 주목하면서 문학작품의 의미들이 다양하게 조명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을 들면 다음과 같다.

09. 설석규, 「嶺南士林의 分化和 龜巖 李楨의 역할」, 『역사교육논집』 36, 역사교육학회, 2006.
10. 강구울, 「龜巖 李楨의 生涯와 詩世界の 몇 局面」,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연구회, 2006.
11. 이상필,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 - 「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 『남명학연구』 2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12. 이성혜, 「龜巖 李楨의 詩 : 진지한 학문하기」,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9) 이정의 시는 元集에 94題 127首, 續集에 177題 202首, 別集에 1題 1首가 실려 있다.

13. 정병호, 「龜巖 李楨의 愛民詩에 대하여」, 『東洋禮學』 18, 2008.
14. 이세동, 「龜巖 李楨의 中庸學」,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15. 전병철,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 공부: - 「神明舍圖銘」 관련 남명학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재해석의 면모와 시대적 의미 -」, 『南冥學研究』 2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9.
16.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7.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退溪學과 韓國文化』 47, 慶北大退溪研究所, 2010.

이 시기는 역사학 방면에서 이정이 이황과 조식의 사이에서 이들의 결속을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하여 어떤 학문적 노력을 했는가를 따진 설석규(09)의 연구와 이정 중용학의 특징과 의의를 논의한 이세동(14)의 연구, 조선전기 성리서 간행과 유통을 밝히면서 이정을 주목한 우정임(16)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가 문학방면의 것이다. 시세계는 강구율(10), 이성혜(12), 정병호(13)에 의해 이루어졌다. 때로는 확장적 측면(강구율, 이성혜)에서, 때로는 집약적 측면(정병호)에서 논의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확장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정이 가진 상상력의 다층성에 주목한 것이라면, 집약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정의 특정 부면에 대한 문학적 형상에 초점을 두었다.

부문학은 이상필(11)과 전병철(15)이 주목하여 남명학과 구암학의 연결고리를 찾았고, 산문은 황위주(17)가 서간문을 주목하여 퇴계학과 구암학의 접점을 찾았다. 부문학에서는 조식의 「神明사명」과 이정의 「神明사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조식과 이정의 문학세계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사상적 연계성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황과 이정이 주고받았던 서간문을



중심에 두면,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이정은 이황과 매우 밀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정의 학문적 연원을 관찰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시기(2011-현재)는 이정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한 때라 할만하다. 제출된 연구물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그 성격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감수하면서 이 시기를 조망해보면 교육학과 문헌학을 중심으로 현장론적 접근 역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18. 이상래, 「龜巖 李楨의 倫理교육론 - 『大學』 重視의 四書觀과 교육 기반의 확충 -」, 『동서철학연구』 59, 한국동서철학회, 2011.
19.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1.
20. 오이환, 「大觀臺 緣起 - 李楨과 曹植의 관계를 중심으로 -」, 『남명학연구』 3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1.

이상래(18)는 교육학의 측면에서 이정의 四書觀을 먼저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교육적 기반을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중용』을 바탕으로 구암학이 연구되었다면 이 논의는 이정이 『대학』을 중시했던 점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교육적 기반으로 확충되어 나갔던 점을 밝힌 것이다. 안현주(19)의 논의는 그동안 간간히 언급되어 오던 이정의 성리서 간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논의는 이정이 성리학의 발달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점을 도서관행과 보급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밖에 오이환(20)은 이정의 대관대에 착목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유적의 위치를 비정하는 한편, 진주음부옥과 관련해서 퇴계학과와 남명학과가 대립해 가던 과정을 재론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구암학 연구는 10년 남짓 이루어져왔다. 이를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제1기에서는 『구암집』을 통해 이정의 학문을 개괄하면서 역사학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면, 제2기에서는 이정의 문학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 심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제3기에서는 이정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학, 문헌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론적 접근도 이루어졌다. 구암학 연구의 이러한 흐름은 이 분야 연구가 여전히 다방면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Ⅲ. 분야별 연구성과

구암학 연구에 대한 경향별 검토는 연구사에 나타난 공시적 측면을 주목한 것이다. 그동안 이정에 대한 연구는 문학을 비롯해서 역사학, 철학, 경학, 교육학, 문헌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상호 중첩된 논의도 있었지만, 이정이라는 주목할 만한 조선 시대의 지식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이다. 현재 학계에 발표된 20편의 논문 가운데 문학에 대한 성과물이 비교적 많고, 그 다음이 역사학이다. 이밖에도 철학, 경학, 교육학, 문헌학 등의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문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20편의 연구물 가운데 10편이 여기에 해당하니 50%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이 비록 구암학의 본령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정이 지닌 문학적 상상력은 그의 사상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도구로 생

각했기 때문이다. 이정 문학은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운문문학은 다시 시문학과 부문학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면 크게 시문학, 부문학, 산문문학으로 세분화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경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시문학 연구는 이정의 시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다루기도 하고 특정적 부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반적인 경향을 다룬 것은 강민구(05), 강구율(10), 이성혜(12)에 의해 이루어졌다. 강민구는 이정의 문학관을 ‘不文之文’으로 요약한 후 현실인식과 中庸學의 표현으로 양분해서 다루었다. 강구율은 이를 더욱 세분하여 ‘觀物察理와 自然合一’, ‘歷史와 民生에의 關心’, ‘歸園意志의 表出’로 나누어 살폈다. 그리고 이성혜는 이정의 시를 진지하게 학문하기로 규정하고, 이를 ‘理念詩’, ‘歷史·懷古詩’, ‘自警詩’, ‘愛民詩’, ‘交遊詩’로 세분하였다. 이 같은 논의는 이정의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분류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정 시세계의 궁극적 지점을 설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이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정 시세계의 궁극은 두 개의 창구를 통해 관찰되었다. 하나는 『중용』이고 다른 하나는 애민이다. 전자는 『중용』을 이정의 得力處로 보고 이를 작품을 통해 해명하자는 것이었다. 정우락(06)의 논의가 이 부분을 주목한 것인데, 그는 『중용』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용어들이 시문학에 직접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되기도 한 다면서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이정의 전체작품으로 나아갔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中庸詠十四首』가 직접적 형상화라면, 『중용』을 표방하지 않는 시에서는 간접적 형상화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정의 시는 애민을 통해 읽히기도 했다. 이것을 단일 주제로 삼아 논의한 것은 정병호(13)에 의해서다. 그는 이정이 23년간 관직생활을 하

는 가운데 19년을 지방관으로 복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民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졌다. 이것은 강구율의 '歷史와 民生에의 關心', 이성혜의 '애민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특히 民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긴 이정의 목민관적 면모를 한시를 통해 부각시키고자 했다.

부문학 연구는 이정의 「神明사부」가 이상필(11)과 전병철(15)에 의해 조명을 받았다. 이정은 조식과 절교하기 이전에는 덕산에 집을 지어 조식과 이웃해 살고 싶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sup>10)</sup> 특히 그의 「神明사부」는 조식의 「神明사도명」과 명칭뿐만 아니라 핵심사상까지 유사하다. 여기에 착목한 이상필은 이정의 학문 표적이 이 부에 드러난다고 보고, 이황과 함께 조식을 그 자신의 학문적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이어 전병철은 조식의 「神明사도명」이 남명학파에서 어떤 계보를 형성하는가 하는 점을 들어, 그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정의 「神明사부」를 제시하였다.<sup>11)</sup>

산문문학 연구의 경우 이황과의 往復書翰이 중심이 되었다. 황위주(17)의 논의가 그것이다. 이 논의는 이정 산문이 지닌 글쓰기 방식이나 미의식 등을 다룬 것이 아니라, 왕복서한을 중심으로 이황과의 관계 내지 이를 통한 이정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황이 이정에게 보낸 서한은 140여 통으로 이황 말년 18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고, 주자학 관련 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대한 협의, 학문탐색에 대한 질의와 응답,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와 업무처리에 대한 협의

10) 이정이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 사람을 보내 조식에게 부탁하여 산천재 옆에 터를 잡아 일곱 간의 기와집을 지었다. 그러나 벼슬살이로 말미암아 그 집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鄭復始와 尹光前은 시를 지어 이를 기뻐한 바 있다. 이러한 사언이 『晉陽誌』 卷1, 「山川」조에 보인다.

11) 전병철이 제시한 작품은 李楨의 「神明舍賦」, 외에 金字顯의 「天君傳」, 姜大遂의 「神明舍記」, 河潛의 「神明舍記」, 郭鍾錫의 「神明舍賦」이다.

등이 그 주요내용이라 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정이 퇴계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던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역사학 분야의 연구에 대해서다. 이 분야의 연구는 학문연원과 함께 진주음부옥과 관련하여 퇴계학과와 남명학파가 갈등하면서 분화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정의 학문연원은 정경주(08)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정의 학문은 청소년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가학과 어득강, 송인수, 주세붕, 조식 등 여러 선배 장자들과 다양한 학문적 교섭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년에 가서는 이황에게 전폭적으로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진주음부옥에 대한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정만조(02)다. 그가 이 사건에 주목한 까닭은 퇴계학과와 남명학파는 물론이고 남명학과 내부에서도 정인홍 계열과 정구 계열의 갈등과 분기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은식(04)은 진주음부옥의 전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이정-조식-이황’과의 역학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음부로 매도당하였던 함안 이씨가 관에서 간음 사실의 유무를 조사받은 후 방면되었으므로 ‘음부’라고 칭할 수 없기 때문에 진주옥사<sup>12)</sup>라 불러 마땅하다고 했다.

역사학계에는 이정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의 관계를 특별히 주목하였다. 이수건(03)은 이를 ‘盜名·欺世문제와 退南 및 구암과의 관계’, ‘문체문제’, ‘진주음부옥사로 인한 남명의 절교와 구암 및 퇴계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이정은 이황과 조식 사이에 벌어졌던 이

12) 진주옥사는 진주음부옥사, 진주유생옥사 등으로 불린다. 이에 대하여 이은식은 ‘진주옥사’는 진사 하종약 후처의 사건으로, ‘진주유생옥사’는 진주옥사로 말미암아 생긴 유생들의 사건이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진주옥사는 그 대상이 이씨이고, 진주유생옥사는 그 대상이 진주유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러한 사건들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설석규(09)는 이정의 성리학적 세계관의 성격과 위상을 이황과 조식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즉 이정은 이황과 조식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 나선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和’의 추구가 이에 대한 결정적인 예가 된다고 했다.

셋째, 기타 연구에 대해서다. 철학 분야의 연구는 문학이나 역사학 영역에 비해 소략한 편이다. 『중용』에 주목한 논의가 있기는 하나 유학 사상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것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최영성(07)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이정의 心學思想과 조선유학사상의 공헌도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誠敬이 그 학문의 精華이며 刊布群書와 建院尙賢이 유학사상 최대의 공헌이라 하였다.

경학 연구는 이세동(14)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정이 남긴 문헌 가운데 경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동은 「中庸詠十四首」라는 한시 14수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이정 중용학의 특징과 경학사적 위상을 제시했다. 즉 그의 중용학은 철저하게 주자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선 성리학 발전 초기 단계에서 본체론 중심의 『중용』 이해가 수양론 중심의 『중용』 이해로 건너가는 교량의 자리에 위치<sup>13)</sup>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논의는 經典刊布라는 성리학의 발달사적 공헌에 대한 이정 자신의 내적 역량에 대한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이상래(18)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이정이 지닌 교육사상에 주목하였는데, 그의 교육론적 요지는 『대학』에 있다고 하였다. 『중용』 역시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교육사상의 핵심에

13) 이세동, 「龜巖 李楨의 中庸學」,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266쪽.

는 『대학』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중용』에 대해서는 문학을 통한 간접화 방식을 취하지만, 『대학』은 직접화법으로 수기치인의 논리나 진덕수의 『대학연의』, 구준의 『대학보유』를 강조하였던 것을 특별히 주목하였다. 이정의 『대학』 중시는 경연에서도 나타나 군주에 대한 ‘審幾微’ 학습으로 구체화된다고 했다.

문헌학 분야의 연구는 이정의 도서관행을 분석하면서 구체화 되었는데, 이 연구는 우정임(16)과 안현주(19)가 담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의 초기부터 이수건(03) 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우정임은 조선전기에 이황 계열의 서적 간행 사업과 관련하여 이정을 본격적으로 주목하였고, 안현주는 이를 더욱 부각시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안현주의 연구에 의하면 이정은 20종<sup>14)</sup>의 도서를 편찬·교정·간행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가 간행한 서적은 거의 성리학 관련 서적으로 목판본이며, 간행지와 간행시기는 경주와 순천 등에서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라고 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정의 도서관행과 보급이 성리학 발달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밖에 이정의 대표적인 유적인 대관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이환(20)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대관대의 복원을 위한 대관대지 및 대관제지에 대한 정밀 시굴조사 과정에서 시도되었다. 구계서원과 대관대 및 대관재의 관계가 학계에 알려진 바 없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고학적 발굴이나 건축학적 검토 못지않게 문헌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한다고 했다.<sup>15)</sup> 따라서 이 논의는 대관대 복원에

14) 이정이 간행한 서적을 우정임(16)은 21종이라 하였고, 안현주(19)는 20종이라 하였다. 서명도 다소의 출입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연구를 요한다.

15) 이 연구는 이와 함께 하종악 후처 사건이 남명학과와 퇴계학과가 대립하게 되는 사상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이 문제도 아울러 다루었다.

따른 문헌적 검토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아울러 이점 유적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하겠다.

구암학에 대한 연구경향별 검토는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문학 분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이 역사학 분야이며, 기타 철학이나 경학, 교육학, 문헌학, 그리고 유적에 대한 검토가 한 차례씩 이루어졌다. 구암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지 13년째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따져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이로써 이 분야 연구의 구체적 논점과 함께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의 연구에 주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선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IV. 주제별 문제의식

이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이 상호 중첩되면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이점을 어떤 시각에서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점 연구의 역사가 일천한 현재로서 뚜렷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은 논의를 예각화하기 위하여 이황과 조식 사이에서 이점의 구체적 위치를 설정해 이해하려 하기도 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그의 상상력의 귀결점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진주음부옥의 과정에 잠복되어 있는 사상사적 의미를 해석하려 하기도 했다. 이 셋은 이점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구암학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구암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찍이 趙綱(龍洲,



1586-1669)은 이정에 대해서 “『辭副提學疏』는 明白하고 平正하여 한 글 자라도 성리학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고, 제시한 방법 역시 소루하지 않아 실로 정치의 하는 데 藥石이 된다. 여기서 造道의 깊음을 족히 보겠다. 부나 시편들은 공의 저술 가운데 먼지나 때, 겨와 쪽정이 같은 것이지만 한 구절이라도 바른 데서 나오지 않음이 있겠는가.”<sup>16)</sup>라고 평가하였다. 이로 보면 이정이 치도를 다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단으로 여기는 문학마저 성리학의 바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암학이 性理之正에 근거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최영성(07)은 ‘誠敬’이라 하였다. 그는 이것이 구암학의 精華라고 하면서, “학문의 요점은 반드시 誠과 敬을 주로 해야 한다. 그런 뒤에 그 학문이 精一해져서 거짓이 없을 것이다.”<sup>17)</sup>라고 하는 이정의 말을 특기하였다. 한편 이상필(11)은 구암학의 핵심을 ‘敬義’라고 하였다. 『신명사부』의 분석을 통해 이것을 제시하였다. 즉 경의를 중심으로 천부의 理를 발현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하면서도 도통의 개념을 수용하여 주자학적 정통론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성경’과 ‘경의’를 핵심개념으로 하는 성리학적 수양론이 구암학의 요체라면, 이를 가능하게 했던 사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연구자들은 이것을 『중용』과 『대학』에서 찾았다. 이정 스스로가 『중용』을 ‘傳道之書’로, 『대학』을 ‘入德之門’으로 보았으니,<sup>18)</sup> 이 책에 대한 중요성을 그는 깊

16) 趙綱, 『龜巖集序』, 『龍洲遺稿』 卷11(『韓國文集叢刊』 90, 187쪽), “辭副提學一疏, 明白平正, 無一字不本於性理之學, 而術又不疏, 實爲治之藥石, 於此足見公造道之深矣. 若其賦詠篇什, 特公之塵垢糠粃, 而有一句不出於正者乎!”

17) 李楨, 『勸學箴子』, 『龜巖集』 卷1(『韓國文集叢刊』 33, 431쪽), “學問之要, 必主於誠敬, 然後, 其學也, 精一無僞.”

18) 李楨, 『學庸章句指南跋』, 『龜巖別集』 卷1(『韓國文集叢刊』 33, 523쪽), “大學, 入德之門, 而中庸, 傳道之書也.”

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우락(06)은 『중용』이 문학작품에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논의하였고, 이세동(14)은 이정 ‘중용학’의 경학사적 성격을 밝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상래(18)는 『대학』이 이정 교육론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고 하기도 했다.

둘째, 이황과 조식 사이에서 이정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정이 『陶山及門諸賢錄』에는 이황의 문인 가운데 세 번째로 올라 있고, 『山海師友淵源錄』에는 조식에 대한 ‘尊先生者’로 등재되어 있어 문인보다 높은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sup>19)</sup> 이정이 이황의 문하에 입문한 시기는 32세로 1543년 가을 영주 군수에 부임하였다가 그 임기가 끝날 무렵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정이 조식을 만난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송인수가 1534년에서 1537년까지 사천에 유배되었을 때쯤으로 추측한다. 송인수는 조식의 오랜 친구이며, 이정은 이 시기에 송인수의 문인이 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이황에게서는 문인으로, 조식에게서는 존선생자로 후인들이 인식하고 문인록에 기록한 데서 우리는 어떤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수건(03)은 이정이 “온화하고 情簡하며 원만한 성격으로 待人·接物에 있어서도 퇴계를 전범으로 삼았던 것이다.”<sup>21)</sup>라고 하며 여러 측면에서 이황과 밀착시켜 논의하였고, 정경주(08) 역시 그의 학문

19) ‘존선생자’는 ‘道義之敎’와 ‘門人’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山海師友淵源錄』 권5 들머리에는 “此卷所錄, 皆是尊先生者. 然, 如蘇齋·龜巖·玉溪, 恐不在弟子之列也.”라 기록해두고 있다. 한편 『德川師友淵源錄』 권2에는 이정을 ‘중유’에 실어놓고 있다.

20) 오이환, 「대관대 연가-이정과 조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3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1. 320쪽 참조.

21) 李樹健, 「龜巖 李楨의 生涯와 學問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 李楨 先生의 生涯와 學問』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2. 74쪽.

연원이 가학에서 시작하여 다양하게 수용되나 최종 귀결점은 이황에게 두고 그를 好學의 학문적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황위주(17)도 이정과 이황의 왕복서한을 분석한 후, “경제적으로나 심정적으로 퇴계를 후원하고 신뢰한 든든한 조력자”<sup>22)</sup>로 이정을 떠올리며 이황과 이정의 밀접한 관계를 구명하였다.

‘이황-이정’이라는 단선적 학통의식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이정의 학통을 이황과 조식에게서 공동으로 찾으려는 노력도 있었다. 설석규(09)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퇴계학과와 남명학과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자리한 이정은 현실대응 자세에서 성·정과 덕·행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 ‘中和’를 찾아가는 점을 포착한 후,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영남사람의 분화조짐을 해소해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했다. 이상필(11) 역시 이정의 학문적 표적은 퇴계학과 남명학이라고 하면서, 정구나 김우옹처럼 퇴계학과와 남명학을 아우르고자 한 초기 인물로서 이정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23)</sup>

셋째, 이정이 당대의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이정 스스로가 성경 혹은 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리학적 수양론을 중심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갔던 점을 사회적 측면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린다. 명현을 기리는 사업과 성리서를 간행하는 사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명현을 기리는 사업은 그가 순천부사에 부임하면서 金宏弼(寒暄堂, 1454-1504)의 유적인 臨淸臺 옛터에 누대를 짓고 景賢堂과 玉川書院을 세우거나, 경주부윤이

22)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退溪學과 韓國文化』 47, 慶北大 退溪研究所, 2010. 339쪽.

23) 전병철(15)도 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공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정의 「신명사부」를 거론하고, 특히 이 작품은 조식의 「신명사도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였다.

되어 설총과 최치원 등을 향사하는 西岳精舍를 지은 것이 그 대표적이다.

이정의 성리서 간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16세기 이후 성리학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이수견(03)과 최영성(07)에 의해 부분적으로 있어왔고, 본격적인 논의는 황위주(17)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이황과의 왕복서한을 다루면서 그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자학 관련 서적의 간행과 보급이라고 하였다. 즉 『朱子詩集』, 『延平問答』, 『伊洛淵源續錄』 등 주자학 관련 서적에 대한 송부와 수령, 교감과 간행, 서발문의 작성과 수정 배포 등을 협의하였다. 왕복서한 140통 가운데 71통이 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정과 이황이 주고받은 왕복서한은 두 사람의 관계와 역할을 서한에 국한시켜 살핀 것이어서 서적 간행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에 앞서 우정임(16)이 주목하였고, 나아가 안현주(19)는 이정의 성리서 간행을 더욱 집약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이정이 편찬하거나 편찬과 함께 간행한 책으로 『皇明名臣言行錄』·『性理遺編』·『景賢錄』·『壽瑞詩』 4종, 간행한 책으로는 『孔子通記』를 비롯하여 『二程粹言』, 『程氏遺書』 등 16종<sup>24)</sup>이라 했다. 이정의 이러한 서적 간행과 보급은 우리나라 성리학 발달사에 특기할 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진주음부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진주음부옥은 1568년(선조 원년)에 일어난 옥사로, 진주 수곡에 살았던 진사 河宗岳의 후처 함안 이씨가 음행을 저질렀다 하여 고발되어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이다.<sup>25)</sup>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이정은 조식으로부터

24) 이밖에 『外書』, 『伊洛淵源續錄』, 『濂洛風雅』, 『擊壤集』, 『延平問答』, 『朱子詩集』, 『唐鑑』, 『家禮儀節』, 『讀書錄』, 『居業錄』, 『皇明名臣言行錄』, 『理學錄』, 『暨無間先生集』 등이 있다.

25) 이은식은 옥사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① 진주 수곡에 사는 진사 河宗岳이 남명의 형인 曹粒의 딸과 혼인을 하였다. ② 하종악의 부인이 딸 한 명을 두고

절교 당하였으며, 이황과의 친밀성은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로써 남명 학파와 퇴계학파는 분기의 결절점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진주음부옥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연구자는 정만조(02)다. 기존의 연구에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단장취의식 오해와 혼란을 불러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진주음부옥이 별다른 결말 없이 종결되고 말았지만 후세에 미친 영향은 훨씬 크고 지속적이었다고 진단한다. 이론과 실천의 추구라는 이황과 조식의 철학적 사고 차이와 갈등이 결국은 이 음부옥으로 표면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河流(覺齋, 1538-1590) 등에 의해 음부로 지목된 이씨의 휘가출향은 16세기 이래 향촌사회에서의 관권에 대한 사림의 주도권 장악의 선례를 보여준 것이라 해석했다.

이후 이 문제는 이수건(03)과 오이환(20) 등에 의해 재론되었고, 이은식(04)은 이 문제를 논제로 삼아 더욱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그의 기본 시각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적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 영남이 양분된 것이 아니며,<sup>26)</sup> 당사자 함안 이씨가 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방면되었기 때문에 ‘음부’라고 칭할 수 없어 이 사건의 명칭도 음부옥사가 아니라 진주옥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정의 손자 이곤변과 조식의 손자 조준명이 쓴 自家 立場의 「擬訛拙辯」과 「反辯」을 분석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

세상을 떠나자, 하종악은 함안 이씨를 후처로 맞아들였다. ③ 하종악이 죽었다. ④ 이씨는 음행을 저질렀다고 관에 고발을 당했다. 음행의 대상은 여종의 남편인 河莫丁과 종인 元石이었다고 했다. ⑤ 관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⑥ 남명의 제자들이 이씨가 무혐의로 처리되자 이씨의 집을 부수어버렸다. ⑦ 관에서는 사사로이 남의 집을 부순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다. ⑧ 남명 측에서는 서울에 탄원을 내었다. ⑨ 조정에서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후일 모두 석방되었다.

26) 『조선왕조실록』 선조 2년 5월 1일조에 “嶺南分黨之禍，亦是於此矣.”라고 적고 있다.

아직까지 이 사건이 정확하게 결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이정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황과의 왕복서한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정은 다양한 성리서를 출판하여 성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관리로서 탁월한 치적을 올려 많은 칭송을 받았다. 내외관직을 거치는 가운데 수령의 최고직인 경주부윤과 淸宦인 홍문관 부제학을 제수받는 등 관리로서의 영예를 한 몸에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가진 당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으로 남았다.

이수건(03)은 이정의 현실인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정이 현실에 대한 관심, 즉 현실의 부조리와 민생의 고통 및 향촌의 피폐상에 주목하면서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정이 시종일관 『性理遺編』 등의 서적을 간행 보급하는 데 급급하였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매우 희박하였으며, 위학자세와 경제사상 역시 기존의 성리학 체계와 양반사회에 안주하여 현실유지적 보수경향을 견지하였고 시정을 비판하거나 현실의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의지는 약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퇴계학이 갖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구암학의 한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정의 현실인식에 대한 한계가 문학 연구 방법에서는 반론적으로 제기되었다. 강구율(10)이 ‘역사와 민생에의 관심’, 이성혜(12)가 ‘역사·회고시, 선현에 대한 추모와 역사를 통한 경계’와 ‘애민시, 목민관의 자세와 한계’를 논한 것이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정병호(13)는 논의의 주제어를 ‘애민시’로 내세우며, 이정은 애민시를 통해 민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했으며 민생의 고통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다잡으며 장소

를 가리지 않고 민생을 보살피는 데 진력하였다<sup>27)</sup>고 평가하였다.

구암학 연구는 그 주제적 측면에서 몇 가지가 부각된다. 이정이 이황과 조식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진주읍부옥은 영남지역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목민관 이정의 현실인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암학은 이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훨씬 다양한 주제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암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성 논의가 다음 장에서 이루어진다.

## V. 연구의 과제들

2000년대에 들어 이정의 고향인 사천을 중심으로 구암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정이 지닌 영남 유학사의 위상에 견주어 볼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특히 그가 이룩하였던 성리학적 문체의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확산은 우리나라 성리학 발달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정은 이황 및 조식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후 지역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조식에게 당한 절교는 강우지역에서 그의 연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정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구암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황과 조식 사이에서 그의 위상

27) 정병호(13)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이정의 작품은 「祝網賦」를 비롯한 「題醫方冊面」, 「次燕岐板上韻」, 「次公州板上韻」, 「次鎮岑板上韻」, 「次堤川訥齋韻」 등이다.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당대의 학문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그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영남학과 분기의 계기가 되었던 진주음부옥은 어떻게 이해되어 마땅한가',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대체로 그러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구암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효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구암학을 논의함에 있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본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첫째, 텍스트 비평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전하는 문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글이 잘못 들어온 경우가 허다한데, 『구암집』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觀頤堂記』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이 기문은 宋寅(壺山, 1516-1584)의 堂記인데, 송인의 문집인 『頤庵遺稿』 부록에는 「頤庵記」와 함께 尹春年(1514-1567)이 1559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許穆(眉叟, 1595-1682)이 『구암집』을 편찬하면서 이 글의 말미에 '亂稿의 별지에서 나중에 발견했다.'라고 기록해두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사실 누구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사실 오늘날 전하는 이정의 『구암집』은 매우 소략하다. 앞서 살폈듯이 이황이 이정에게 보낸 편지가 140여 통인데 비해, 이정이 이황에게 보낸 편지는 겨우 4통만 『구암집』에 실려 전한다. 질문을 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정이 이황에게 보낸 편지는 140통이 훨씬 넘어야 사리에 맞다. 이것은 후대에 그의 문적이 대부분 일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후인들은 적은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觀頤堂記』와 같이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자료를 편입하였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전하는 『구암집』은 철저한 텍스트 비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철학 분야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정의 학문은 성리학이 핵심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정의 심학사상을 논의한 것(최영성, 07)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이정의 학문과 사상적 특징을 개괄하는 것이 기본 의도였기 때문에, 그의 성리학적 요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오히려 문학적 측면에서 이정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어떻게 작품에 형상화되고 있으며(정우락 06), 역사학적 측면에서 리기심성론이 이황과 어떻게 상통하는가를 따져 영남학과 내의 위상을 따진 논의(설석규 09)가 있었다.

구암학은 그 본령이 성리학이라 할 때, 앞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정의 작품 가운데 「理氣」라는 제목의 시도 있고, 「性理」라는 제목의 시도 있다. 이황 및 조식과 서로 만나면서 성리학적 세계인식과 함께 이를 통한 실천원리를 가다듬어 갔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학문은 이 분야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황이 쓴 「答李剛而」를 보면, 『주자어류』에 대한 성리학적 문제의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활용하면서 이정의 성리학을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문학 분야에 대한 확장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정 문학에 대한 논의는 시문학이 중심이 되었고, 『중용』이 그의 문학에 형상화되어 있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시도되어 온 것처럼 이정의 시문학에 대한 정체를 밝히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辭賦文學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는 「신명사부」가 논의되었을 뿐(이상필 11, 전병철 15), 「蓮潭辭」, 「鴻門宴圖賦」, 「代龜錯雪冤賦」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산문에 대한 관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啓辭, 筭子,

疏, 識 등 공적인 기록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이들 자료 역시 충실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雲谷微音詩後識」은 武夷棹歌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어 특기할 만하며, 「臨淸臺碑陰識」에는 曹偉(梅溪, 1454-1503)와 金宏弼(寒暄堂, 1454-1504)이 순천 서계에 귀양 와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이황의 글씨로 비문을 새겨 이들을 기리고자 했다. 이렇듯 이정의 산문 문학 역시 구체적으로 따져 이에 대한 문학적 의의와 함께 미의식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학 분야의 총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정을 당대의 대표적인 교육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학 분야의 연구는 『대학』에 입각하여 이정의 윤리교육론을 따진 이상래(18)의 논의가 전부이다. 이정의 교육이념에 대한 논의도 더욱 예각화되어야 하겠지만, 성리서 간행 등 그가 벌인 일련의 출판사업을 통해 그의 교육사상은 보다 명확하게 구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리서 간행이 지닌 교육사상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이정이 옥천정사와 서악정사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 하면서, 이를 통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던가 하는 부분도 실증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다양한 정사를 지어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출판사업이 당대 교육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데 유효하였다면, 이들 정사 건립은 당대 교육의 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그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이 분야의 논의는 바로 이곳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정의 학문적 수수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구암학의 연원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당시 사천지역에는 김안로 일파의 탄핵을 받아 宋麟壽(圭菴, 1499-1547)가 유배되

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곤양에 魚得江(灌圃, 1470-1550)이 군수로 재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거제와 김해에는 양재역벽서사건에 연루되어 丁燾(遊軒, 1512-1560)과 金鸞祥(餅山, 1507-1570)이 유배되어 와 있었다. 이정은 이들을 찾아 사사하거나 교유하며 학문을 연마해 나갔다. 바로 이 점에서 이들의 교유와 그 학문적 수수관계를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정의 학문적 수수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이황과 조식이다. 이를 인식하여 이미 다양한 글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논급이 있어 왔다. 그러나 조식과 이정의 절교사를 중심으로 한 갈등 관계에 초점이 놓여져, 이들 사이의 학문 내적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황과 이정, 조식과 이정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따져 그 의미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구암학의 정체성은 이로써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구암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론은 자료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예컨대 이정 문학작품의 일부는 지리학적 공간을 담지하고 있다. 三恨齋, 佛日庵, 安心寺, 灌圃堂, 山海關, 雙溪樓, 天淵臺, 吾魚寺 등의 허다한 인공물과 內迎山, 迎日縣, 濯纓潭, 臨淸臺 등 다양한 자연물이 등장한다. 이들 인공물과 자연물은 모두 이정이 卽景生情한 것인 바 그의 사유를 시공간과 결부시켜 상상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은 또한 교육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사를 건립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도 다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이 역시 문화론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가 경주부윤으로 부임하였을 때 서악정사를 창건하였다. 이때 이정의 스승 이황은 이 서원의 강당을 時習堂으로 명명하는 등 당호를 짓는다.

그 밖에 동재는 進修齋, 서재는 誠敬齋, 동하재는 藻雪齋, 루는 詠歸樓, 문은 道東門이라 이름 붙였다. 순천부사로 부임하였을 때 건립한 옥천정사의 경우도 당우의 이름과 함께 志道齋와 依仁齋라는 재명 역시 이황에게 의뢰해 짓는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이정과 관련된 문화공간은 그가 남긴 문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구암학 연구를 위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번역해 내는 일, 일반인이 구암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암 평전』을 쓰는 일 등 다양한 작업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작업이 이상에서 제시한 몇 가지 방향의 연구와 맞물릴 때 구암학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가문사학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문중과 후손들에 의한 위선사업의 일환으로 상찬 일변도의 학술대회를 여는 일이 없지 않다. 이것은 학문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1. 원전 및 국역

成基玉, 『국역 구암집』, 사천문화원·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2013.

李仁燮, 『국역 龜巖集』(天·地·人), 泗川文化院, 2002.

李楨, 『龜巖集』, 『韓國文集叢刊』 90, 民族文化推進會, 1989.

曹植, 『南冥集』, 『韓國文集叢刊』 31, 民族文化推進會, 1989.

宋寅, 『頤庵遺稿』, 『韓國文集叢刊』 36, 民族文化推進會, 1989.

『晉陽誌』

## 2. 논저

- 강구울, 「龜巖 李楨의 生涯와 詩세계의 몇 局面」,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연구회, 2006. 3-28쪽.
- 姜玫求, 「龜巖 李楨과 泗川·晉州地域의 退溪學派」, 『退溪學과 韓國文化』 31, 慶北大退溪研究所, 2002. 1-26쪽.
- 실석규, 「嶺南士林의 分化和 龜巖 李楨의 역할」, 『역사교육논집』 36, 역사교육학회, 2006. 227-267쪽.
- 신병주, 「『龜巖集』 해제」, 『南冥學研究』 1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0. 323-339쪽.
-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1. 339-367쪽.
- 오이환, 「大觀臺 緣起 - 李楨과 曹植의 關係를 중심으로 -」, 『남명학연구』 31,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11. 305-341쪽.
-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287쪽.
- 이상래, 「龜巖 李楨의 倫理교육론 - 『大學』 重視의 四書觀과 교육 기반의 확충 -」, 『동서철학연구』 59, 한국동서철학회, 2011. 301-320쪽.
- 이상필,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 - 「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 『남명학연구』 2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7. 263-285쪽.
- 이성혜, 「龜巖 李楨의 詩 : 진지한 학문하기」,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291-320쪽.
- 이세동, 「龜巖 李楨의 中庸學」,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265-300쪽.
- 李樹健, 「龜巖 李楨의 生涯와 學問 및 ‘退南’과의 關係」, 『龜巖 李楨 先生의 生涯와 學問』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2. 15-76쪽.
- 이은식, 「龜巖과 晉州獄事」, 『龜巖 李楨 先生의 生涯와 學問』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2. 77-143쪽.
- 李中喆, 『龜巖年譜』, 泗川文化院, 1994. 1-216쪽.
- 장원철, 「南冥의 碑誌文字에 대한 한 小考 : 李湛의 神道碑銘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12,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2. 33-61쪽.

- 전병철,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 공부: - 「神明舍圖銘(神明舍圖銘)」 관련 남명학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재해석의 면모와 시대적 의미 -」, 『南冥學研究』 28,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9. 315-360쪽.
- 정경주, 「구암 이정의 사우와 학문연원」, 『제4차 학술발표자료집』, 사천문화원, 2005. 387-418쪽.
- 정경주, 『한국중세문화인물연구』, 신지서원, 2010. 1-456쪽.
- 鄭萬祚, 「宣祖初 晉州淫婦獄과 그 波紋」, 『韓國學論叢』 22, 國民大 韓國學研究所, 2000. 69-94쪽.
- 정병호, 「龜巖 李楨의 愛民詩에 대하여」, 『東洋禮學』 18, 2008. 227-243쪽.
- 정우락, 「『중용』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학회, 2003. 171-212쪽.
- 최영성, 「龜巖 李楨의 學問과 朝鮮儒學史上的 貢獻」, 『유교문화연구』 7,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4. 73-104쪽.
- 황위주, 「退溪와 龜巖의 往復書翰」, 『退溪學과 韓國文化』 47, 慶北大 退溪研究所, 2010. 310-341쪽.

Abstract

## A Reflective Investigation into Researches on Guam Lee Jeong

Jeong, Woo-Rak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how researches on Lee Jeong had been conducted and what directions they should take in future. Researches on him have been diverse in spite of a short period of time. Their essential problematic consciousness includes “What is the essence of Guam study?”, “How should his status be set between Lee Hwang and Jo Shik?”, “What kind of effort did he make to promote the studies of the times?”, “How should Jinjueumbuok(晋州淫婦獄) be understood which caused the ramification of the Yeongnam School?”, and “What was his perception of reality?” Those questions seem to have been very valid for understanding Guam study and will continue to be raised in the discussion of Guam study.

Based on the achievements so far, the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future tasks regarding Lee Jeong: “text criticism of Guam Collection,” “full-scale research in the field of philosophy,” “extensive discussions in the field of literature,” “general researches in the field of pedagogy,” “Lee Jeong’s academic give and take relations,” and “a cultural theory-based approach to Guam study.”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works left including collecting, sorting out, and translating a body of data for researches on Guam study and writing a “critical biography of Guam” to help common people understand Guam study easily. When carried out properly, those tasks and works will finally reveal the true nature of Guam study, which will be highlighted as an essential meaning for today’s society.

**Key Word**

Guam Lee Jeong, Guam study, Yeongnam School, Toigye study, Nammyeong study, reflection upon research, future task

- 논문투고일 : 2013.1.20.    심사완료일 : 2013.2.8.    게재결정일 : 2013.2.13.